

□ 2025. 12. 29. 발생한 항공사고는 충격과 슬픔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었다. 정부는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분절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 유기적인 공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트라우마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단위별 심리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민간 치료를 받는 경우 심층진료비 지원 외에 데이터 공유나 정신역학 측면의 통합관리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즉, 물적 지원과 보상에서 나아가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지원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보건의료특위는 본 토론회를 주최하며, 일과성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보상을 넘어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종 지원 관련 특별법과 정신건강복지법과의 연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토론회는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선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에서의 재난 및 집단트라우마 대응과 조사: 실태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김현 미나소타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미국의 재난 관리, 대응과 사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대표 변호사(서초 분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

책관) ▶ 조동찬 (前SBS의학전문기자, 前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 前한양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최대해 (대한응급의학회 무임소이사(재난), 차의과학대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토론회 진행(안)은 총 180분 동안 이루어질 계획이며, 약 140분간을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배분했다. 유의미한 대화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시간 운영은 당일의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보건의료특위를 이끄는 강청희 위원장은 “**분절적인 피해자, 유가족 보상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참사 이후 지속적 심리지원 방안이 국민 보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첨부]

1. 국회토론회 포스터 1부 끝.

국민적 참사
트라우마극복을 위한

지속적 심리지원 방안 국회 토론회



2025. 1. 16.(목) 국회의원회관
오후 2시 제1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주 관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내 용 | 국민적 참사 트라우마극복을 위한 지속적 심리지원 방안

좌 장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발 제 | 한국에서의 재난 및 집단 트라우마 대응과 조사: 실태와 나아갈 길

정선재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미국의 재난 관리, 대응과 사례

김 현 미네소타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토 론 | 최대해 대한응급의학회 무임소이사(재난), 차의과학대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조동찬 前SBS의학전문기자, 前한국과학기자협회 부회장, 前한양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대표 변호사(서초분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국장)

문의 | 사무국장 이주현(010-8089-1000)